

[칼럼02:Re]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은 수험생활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분기별로 내가 꼭해야하는 공부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 공부들을 제대로 성취해야 수능날 안정적으로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분량이 좀 있는 글입니다.

두고두고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일러두기-

1. 본 칼럼은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사실 모든 수험생이 이 틀을 따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글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단정적 어조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간계획표 칼럼과 연계되는 칼럼입니다. 같이 읽으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현역과 n수생의 1년의 큰 틀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 ~ 3 월 (개학 전)	3 월 ~ 6 월	7 월 ~ 9 월	10 월 ~ 11 월
현역	전과목 유베이스 만들기	기출 분석 실전 개념 형성 공부 능력 향상	<u>상한선 높이기</u> 본인의 최고점이 100 점이 될 수 있도록	<u>하한선 높이기</u> 어떤 상황에서도 1 등급을 맞는다

	1 월 ~ 2 월 중반	2 월 중반 ~ 6 월	7 월 ~ 9 월	10 월 ~ 11 월
N 수생	부족한 공부 (4~5 등급 이하의 성적대)	기출 분석 실전 개념 형성 공부 능력 향상	<u>상한선 높이기</u> 본인의 최고점이 100 점이 될 수 있도록	<u>하한선 높이기</u> 어떤 상황에서도 1 등급을 맞는다

*전과목 평균 4~5 등급의 N 수생은 1 월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각 시기엔 그때가 아니면 늦는 공부들이 있습니다.

시기에 맞는 공부들이 있다고요.

해당 공부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시기에 맞게 실력을 기릅니다.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해요.

당연히 본인의 실력이 늘고있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여유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현역 여러분은 절대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45일 잡읍시다

개학 전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날들

딱 이 정도는 공부에 모두 쏟으시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혼자서의 휴식을 취하세요. 애매하게 하루 두 시간 휴대폰 보며 쉬는 것보다,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난 뒤 며칠간 완전히 충전하는 패턴이 여러분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어설픈 집에서 공부하지 맙시다.

자신은 집에서 집중이 잘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전교권 성적에 들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기숙학원 가거나 독재학원 윈터스쿨 등을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확률에 의존하면 안됩니다

현강 갈 시간 아깝습니다. 굳이 간다면 하나 가세요. 인강 들으며 현강 스케줄을 철저히 따른다면 현강의 메리트를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개학 전에 뉴런 같은 강의는 전과목적으로 완강하세요. 자신이 몇 과목은 자신 있다. 그러시면 그런 과목은 선택적으로 자습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탐구 하나, 영어 정도는 인강을 발췌해서 듣는 자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너무 걱정되면 $\pi\pi$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주간계획표를 세우세요. 겨울방학이라는 백지를 어떻게 칠할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매주 반복 가능한 주간계획표를 세우는 겁니다.

#N수생 1월 ~ 2월 중반

(3월까지도 괜찮습니다.)

모든 과목이 유베이스인 N수생들에게는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급하게 공부를 시작했다간 오히려 6월 넘어서 지치게 됩니다.
안 그래도 11월엔 모두가 허덕일 텐데, 미리 지친다면 그 피해는 심하죠.

하지만 자신이 **국수영 중 한 과목이라도 4, 5등급이거나**

탐구를 이번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1월부터 2월 중반까진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을 진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국어를 가르치니 국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5등급들은 아예 국어라는 과목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아 공부를 해도 삽질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1~2월에 '본격적인' 기출 공부를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만 잘 잡아도 본전은 치는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 자습을 철저히 하기엔 어려운 시기이니 인강이나 과외, 현강 중 하나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에 과외 같은 수업을 들으며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고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기간엔, **어렵지 않지만 귀찮고 꺼려지는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확률과 통계의 통계, 국어의 고전 문학, 문법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위의 공부들 때문에 진도가 탄력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확통을 하다가 통계를 할 차례가 되면, 새로운 책으로 다시 진도를 나가거나, 문학 기출 문제지를 풀면 고전문학 단원은 건너뛰고 푸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런 공부들을 미리 이 기간에 해치워 나가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간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는 능력

본격적인 수험생활의 시작인 **2월 중반 ~ 6월 모의고사** 기간엔 공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면서 그에 맞는 대비책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공부의 핵심인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거창한 용어 때문에 지레 겁을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향상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계적인 계획표'

제가 후회 없는 뿌듯한 1년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건
매주 작성한 주간계획표와 매일 정리한 일일계획표 덕분이었습니다.

매주 똑같은 공부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주간계획표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1. 고정된 스케줄을 기준으로 - 식사 시간, 현강/과외 시간 등
 2. 선택과 집중 - 불확실한 것에 기대하지 말 것
 3. 안정된 공부 콘텐츠 - 주어진 콘텐츠, 계획된 콘텐츠에 집중하기
 4. 매주 반복 가능한 계획표 - 계획표가 안정된 뒤엔 매주 수정이 없게
- + 독해지려 애쓰지 말 것**

1, 2, 3, 4 는 꽤 들어본 말일 것이고 나중에 칼럼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칼럼04 참조)
여기서는 **+독해지려 애쓰지 말 것**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 독해지려 애쓰지 말 것 -

독해야 성공하는 것은 맞고 제가 가장 성적이 잘 나왔을 때도 실력과 무관하게, 가장 독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독기를 끌어올 만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독기를 품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 공부는 일상이 되고 본인에 의해 통제된 자신은 항상성을 깨뜨리는 것을 기피하게 되면서 타인이 보기에 점점 독해지는 겁니다. 필히 오를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인해 목표 또한 높아지거나 선명해져,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요.

독해지려 애쓰기 보다는 **현재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공부가 득이 됩니다.

'뉴런 3과목 완강', '일, 취 클래스 완강', '수분감 다 풀기' 등... 일정한 분량만큼 매일 공부하면서 '공부 근성'을 기르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세요. 이를 다음 주간 계획표에 하나씩 적용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메타인지는 조금씩 향상됩니다.

본질에 충실한 콘텐츠에 집중합시다.

기출 문제지가 대표적이고 뉴런과 같은 수능실전개념서, 영단어 암기, 자신이 수강하는 메인 국어 선생님의 방법론 체화 등... 이때가 아니면 늦는 공부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밀리지 않도록 6모 이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최소한으로 추려서 무조건 끝내십시오.

EBS 정리를 이때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는 아닙니다.

EBS는 6모 이후 ~ 9모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계교재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올해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

나의 공부는 어떤 점에서 빈틈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6월엔 따로 체계적인 계획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잘 보든 못 보든 큰 시험이 치러지고 난 다음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겁니다.

이 시험을 기점으로 공부 스케줄과 방향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부 패턴을 정착시키긴 힘듭니다.

이 시기엔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방향을 수립한 뒤 주간계획표에 이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매주, 매일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6월 첫 주는 싱숭생숭, 나머지 세 주는 '새로운 주간계획표 정착기간'

이렇게 한 달을 보내는 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95% 이상의 수험생들보다 훨씬 이득일 겁니다.

상한선을 높이는 기간

본인의 최고점이 100점이 될 수 있도록

현우진 선생님의 수학 커리큘럼을 예로 들어볼게요. 드릴이 현강 기준으로 3월~6월 정도에 진행되지만, 전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간단히 정리하여 집중했기 때문에 굳이 뉴런과 병행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때 드릴 세 과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학은 이것 저것 풀려하기보다는 한 콘텐츠에 집중합니다. 드릴, 드릴 워크북 다 사놓고 드릴 워크북 손도 안대는 사람 여럿 있는 거 압니다. 드릴 본교재, 워크북 총 6권, 9모 전에 2회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빠셉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세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드릴 한 권 다 풀면 모르는 문제는 3문제 남짓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 그 의미를 생각하며 꼼꼼히 공부하니 항상 공부량에 허덕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유부리면 안됩니다. 밀도있는 공부를 하세요. 이를 다 했으면 그때 다른 킬러 문제지를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양적으로 충분히 공부한 겁니다.

국어는 기본기가 있는 학생에 한 해(고정 2등급 이상) 여러 선생님의 방법론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한선을 올리는 작업을 하니 도구를 여러 개 장만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수학의 드릴처럼 국어에선 그릿 같은 것도 하나 풀면 좋고요. 문학의 경우 따로 고난도 사설을 풀기 보다는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연계교재 정리에 조금 집중하셔도 됩니다. 고전시가 등이 약하면 이를 집중적으로 파도 좋고요. 다만 올해 교육과정부터 연계교재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으니 이를 인지하며 계획을 세워주세요.

과탐은 별거 없습니다. 실모 간간히 풀면서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고난도 N제 두 권 집중적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과목적으로 고난도 사설 N제를 어느 정도 풀고 나면 기출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설을 보고 나서 기출을 보게 되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안목이 분명히 높아져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풀 준비가 된 겁니다. 평가원스러운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실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

나의 공부는 어떤 점에서 빈틈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6월과 비슷한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한 달간 철저히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세요.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전과목 단위 모의고사를 보셨을 테니 그간 본 모의고사들과 비교해 보며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2월~6월 때 상승한 공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 잘 찾을 겁니다.

하한선을 높이는 기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1등급을 맞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건 이 기간을 위함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성적의 상한선까지 충분히 올려놓았으니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실전에서 어떻게 성적을 올릴지 고민하세요.

해당 과목에 대한 순수한 실력만으로는 실전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보장을 하기 힘듭니다.

시험장에는 시험 자체에 대한 변수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을 정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려면 앞서 설명드렸던 과정들을 충분히 해왔어야 합니다.

본질, 즉 순수한 실력은 이미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국어 수학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이 가장 부족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실모 현장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집에서 학원에서 혼자 보는 모의고사는 수능날 우리가 받는 패널티를 눈곱만큼도 재현해 줄 수 없습니다. OMR 카드도, 가채점표도 안 쓰고, 중간에 화장실 가며, 눈치 안 보고 다리 떨며 보는 모의고사는 안 보느니만 못합니다. 수능날의 그 많은 변수들과 낯선 분위기를 버티기 위해선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 붙여 보아야 합니다.

(투과목 보시는 분들은, 특히 물투 화투는 실모 현장에 어떻게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실모를 풀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순간부터는, '[칼01:RE] 3부'에 올린 파일처럼 수능날 써먹을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수능날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학습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일 겁니다. 백지복습의 효과가 있는 거죠.

본인의 방법론을 A부터 Z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빈틈을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반복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여기까지 착실히 해왔다면, 당신은 분명 후회 없는 1년을 보냈을 겁니다.

하루 하루가 정말 바빠야 합니다.

내가 오늘 뭘 공부할지 몰라 멍때리는 시간이 있어선 안됩니다.

매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성적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교재가 더 좋아보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공부 방식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묵묵히 이겨내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걸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공부하는가입니다.

UFC 아시죠?

경기를 시작할 때 선수를 소개하면서 각 선수들의 파이팅 스타일이 나옵니다.

주짓수, 가라데, 태권도, 유도 등등,, 다양해요.

그러나 어떤 무술을 바탕으로 두어 싸우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술이 얼마나 숙달되어있고 결국 얼마나 센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잘 해봅시다!

GIST해리케인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과 20학번 재학

피랩 교재 오프라인&온라인 검토진

파급효과 물리학1 검토진

자체 제작 교재 10권 내외 보유

경력 1년차, 40명 내외의 누적 수강생
모의고사, 칼럼 등 다수의 학습자료 제작 및 검토 경력

국어 :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수능 국어 : **Kane's Analysis**

본질과 통찰, 이항대립, 부분과 전체 : **Kane's Insight**

기출 분석 및 실전 실력 기르기

물리학 : 물리 I, II 내신 1등급

19 수능 물리 I 50 / 20 평가원 모의고사 물리 II 1등급

물리 경시 및 연구 대회 등 다수의 수상 경력



[필독] 여러 공지사항들

<https://orbi.kr/00034607455>

[케인의 2020년 칼럼 정리]

<https://orbi.kr/00034624645>

[공지] 케인의 2021학년도 콘텐츠를 이용하신 분을 찾습니다!

<https://orbi.kr/00034674631>

[칼럼01:RE] 국어 19점에서 98%까지의 여정

<https://orbi.kr/00034938352>

칼럼이나 자료를 보고 생긴 질문들이나, 본인의 학습 방향 등을 상담을 통해 점검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자유롭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1학년도 케인의 콘텐츠 후기 이벤트 참여 또한 아래의 경로로 하시면 되십니다 :)

수능 국어 개인/그룹/온라인 과외 문의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sGeS8oOc>

인스타 DM : gist_harrykane

